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우리는 항상 주의 기적이 필요하다 성경: 열왕기상 4장1-7절

Tag:

1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2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3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5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값고 남은 것으로 나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왕하4:1-7)

왜 기적이 필요한가?

사람치고, 가정 치고 승승장구하는 자들은 없다.

모든 사람이나 가정은 꼭 한두군데 막혀있다.

막혀있다면 저주를 생각하라.

저주가 없는 사람은 없다.

저주를 끊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사람의 힘으로 저주를 끊을 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저주를 끊는다.

나의 희생은 무엇인가? 그가 예수의 피로 저주를 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라.

언제 막히는가? 때가 차면 막힌다. 한때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차면 막힌다. 하수구 막히듯이.

많고 적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저주는 인생의 앞길을 막는다. 어떤 사람은 작은 저주에 막히고 어떤 사람은 큰 저주에 막힌다. 막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신가?

-그것은 사람들의 숙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숙제를 스스로 풀지 못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예수님은 인류의 저주를 풀어내셨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들이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야 하고,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그것을 운명처럼 여기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간다.

-운명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예수의 피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 주어야 한다. 나도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나도 그렇게 했다고 간증해 주어야 한다.

기적을 어떻게 끌어 당길 것인가?

선지 생도 아내의 기적 레시피 (비결)

엘리사 시절에 선지 생도가 있었다. 그는 경건에 열심이었고 또한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스승 엘리사에게도 잘 알려진 모범생이었다. 아마도 그는 열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은 먹지 못해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것 같다. 그는 결국 허약해졌고, 안타깝게도 병들었는지(?) 죽고 말았다.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과다히 금식기도 했을 수도 있고, 과중하게 업무를 보다 심신이 약해져서 숨졌을 수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성전건축을 위해서 애쓰다 성전 건축 마치고 숨진 목사들이 많다. (또는 쫓겨난)

그에게 아내가 있었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다. 아내는 날품을 팔아서 겨우 겨우 두 자녀를 기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빗쟁이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였다. 선지 생도의 아내는 기가 막혀 엘리사에게 달려와 도움을 청하였다.

선생님 어떻하면 좋습니까? 두 아이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자 제 남편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그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옹치,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죽은 생도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해야 한번 사용할 정도의 기름이 있을 뿐입니다.(올리브 기름;생활필수품.)

기적의 레시피(선지 생도의 아내 버전)

1번 레시피;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

2번 레시피;너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연결시켜라. 너도 그들 중에 함께 우거해라. 사회성의 회복. (싸웠던 가정에도 찾아가라. 돈 꾸어주었던 가정에도 찾아가라.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린 가정

에도 찾아가라. 나를 왕따 시켰던 가정에도 찾아가라. 나를 무시했던 가정에도 찾아가라.) 순종이 어려운게 아니라 사회성 회복이 어려운 것이다.(관계성 회복안에 내 자존심이 끼면 마치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와 같이 부끄러운 것이 된다. 자존심은 기적을 악화시킨다.-더럽힌다. 퇴색시킨다. 음식에 난 곰팡이 같다. 자존심의 누룩을 제거하라.) 아마 그들이 기름을 사주었을 것이다. 그릇을 돌려 주면서 그들에게 기름값을 받았을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하게 또는 갑절의 값을 지불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였고, 그 자녀들이 사회와 연결된다. 하나님의 기적의 기름과 함께 평생의 추억이 될 것이다. 신뢰관계가 맺어진다. 신뢰가 주는 가치가 가장 크다.

3번 레시피; 빈 그릇. 그러나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기적을 채울 수 있는 그릇. 우선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소망의 깨끗한 물로 의심을 씻어내야 한다. 단순함.

4번 레시피; 온 가족이 문을 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출산하라. 기적은 믿음의 가족이 낳는다. 가족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출산하기 어렵다.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이었다. 분위기가 안정스럽고 평안하며 경건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방해가 없어야 한다. 신비의 특성이므로. 신비의 순간은 특정 장소, 특정 인, 특정 기간, 특정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보편적이지 않는다. 신비를 특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유일성)

5번 레시피; 일상으로의 회복. 빛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가정은 비록 남편과 아버지가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무난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 하나님 기적의 특징

-현장성(드라마틱)

-세상에서의 신성의 회복-저주가 사라짐.

-구원. 돈으로도 못해요, 지식으로 못해요, 권력으로 못해요. 맘착해도 못해요, 어여빠도 못해요. (보통은 이런 것들이 통함. 그러나 저주는 안통함. 빈부귀천이 상관없음. 다 되는데 나만 안되는 느낌.)

<찬양예배>

제목 : 이 시대의 작은 교회 성경: 로마서 14장

Tag:

-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 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 10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 12 이렇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에는 속되니라

15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에는 악한 것이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롬14:1-23)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의 형편을 위해 한국에는 기가처치든, 메가 처치든, 적당히 큰 교회든, 동네에 작은 교회든 온전히 준비되어 있다.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한국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교회의 특징

- 교역자와 친밀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 기도나 대화가 피상적이지 않다.
- 교회 일로 분주하지 않다. 가정과 일터에 집중하게 한다.
- 군더더기가 없다. (쇼맨십, 율법주의, 교회우선주의-교회를 위한 율법주의가 없다.)
- 현실주의, 분명한 가치관, 복음에 대한 리얼한 접근.
- 유익한 설교. 다양한 주제, 독창성이 있는 설교, (언어적 세련미는 약함) 강력한 어투가 약함.
-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전혀 정치적이지 못함.

단점; 시설부족(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

- 교회당의 외관이 매우 실용적이다. (고풍적이거나, 수려하지 않다.)
-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교인들이 없다. 사실 이들이 몰려다니면 교회 분위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중견회사원, 교사 등)
- 교회 이전 경험과 관련해서 동력이 딸리고 있음. 안정 위주행보중.
- 기획력은 있으나 동원력이 약함.

*작은교회의 미래

- 독특하고, 강력하고, 나름의 문화가 있는 지역교회
- 다양하기 보다는 집중적인 사역 (학원, 사회봉사, 선교, 음악, 일터교회, 운동, 은사, 기도, 성경공부, 방과후지도, 노인 돌봄)
- 주변의 교회들과 문화, 프로그램, 시설 공유하기
- 1인 다 교회, 한 가정 다 교회, 파견 헌신 등.
- 작은 교회의 큰 교회 이용하기.
- 작은 교회 교인의 큰 교회 수평이동.
- 큰 교회 임직자의 작은 교회 파견헌신.

-크지 않더라도 자체 부동산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특화된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큰 교회는 우수한 문화를 많이 생산하여 지역교회에 공급해야 한다. 단순히 교역자에게 생활비만 보내려하지 말고, 또는 우수한 청년을 실비 지급하여 파견하라.

-큰 교회의 성장은 자신들만의 공적이 아니며, 작은 교회의 힘겨움은 그들만의 실수가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으며 설혹 누군가가 더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을 위한 배려를 적선으로 여기지는 말아라.

-만약 큰 교회가 자신들의 부동산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는 중이라면 그는 주변에 시설이 열악한 교회를 먼저 돌아보아야 마땅하다. 그들은 시설예산의 절반은 주변의 열악한 교회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만약 교회들이 해외선교를 위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중이라면 그들은 주변의 시설이 열악한 교회를 먼저 돌아보아야 마땅하다. 동반성장을 위해서 더 힘썼더라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해외선교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 점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다.

-현재 작은교회 운동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개척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